

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숍

격 려 사

2024. 7.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금융감독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오늘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과 공조를 다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은행·증권·보험·신용기금
등 4개의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출범한 후 20년
이상 명실상부한 국내 금융규제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중심에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소명을 수행
하여 온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한 성취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가상자산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주식에 비견되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65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없어 그로 인한 혼란이 수년간 계속되었고, 가상자산을 소재로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횡행해 왔습니다.

마침내 2023년 7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무렵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 하였습니다.

합수단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파괴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합수단이 수사를 함에 있어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분들의 전문성이 큰 힘이 되었고 한 해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I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추어 서울 남부지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양 기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통일적인 법적용을 고민

하였고, 패스트트랙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절차의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V

오늘 자리는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의 법 시행 준비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양 기관은 금융증권범죄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공조하여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긍심을 갖고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은 자연스럽게 성취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굳건히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불법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원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응석